제19965호

4·29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장

새누리, 정승 지원 정당선거사무소 개소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윤세)이 4·29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한 정승(사진) 후보 지원을 위해 8일 오 후 2시 서구 금호동 백승빌딩 4층에 '보 궐선거 새누리당 정당선거사무소' 개소 식을 갖고 선거체제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일까지 정승 후보의 필승을 지원 할 새누리당 서구을 정당선거사무소 개 소식에는 광주시당 주요 당직자와 정승 후보 등 당원 및 지지자 300여 명이 참석 하며, 분야별 선대위 발대식을 가질 예



정이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은 이날 출범한 각 선 대위별로 4·29 서구 을 보궐선거 압승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지 원체제에 들어간다.

공동 선대위원장인 김윤세 광주시당 위원장은 "당원 모두가 똘똘 뭉쳐 이번 선거에서 정승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영택 "호남고속철 사고는 낙하산 인사 때문"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는 6일 최근 잇따른 호남고속철 사고의 원인 으로 철도공사의 무차별적 낙하산 사 장과 임원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

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호 남민의 숙원이던 호남고속철이 개통하 자마자 '청테이프 기차', '역주행 기차' 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면서 "개통 4일 만에 3번이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철도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



각한지를 여실히 보 여준다"고 지적했 다.

조 후보는 특히 "최근의 사고는 정상 적인 공공기관 운영 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는 근본적으 로 철도공사의 낙하산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세월호 순례단과 삼보일배

무소속 천정배 예비후보는 6일 광주 에 도착한 세월호 삼보일배 순례단과 함 께 삼보일배를 하며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정부의 대책을 강력 비판했다.

천정배 예비후보는 이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1주년이 되어가고 있 지만, 아직도 9명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 다"면서 "희생자 가족들과 반수가 넘 는 국민들이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 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가만히만 있으



라고 한다"고 비난 했다.

그는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세 월호 특별법 시행령

이 입법예고 되었 다"면서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방해하 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은 마땅 히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선관위 "재보선 거소투표 7~11일 신고 하세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11 일까지 닷새간 4·29 재·보궐선거의 거 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거소투표 희망자는 이 기간에 신고해 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 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 는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무 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 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은 신고서를 작성 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 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 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수촌 잘 지어져… 진행상황 흠 잡을데 없다"

FISU, U대회 최종 점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 회·7월3~14일) 개막을 앞두고 국제대학 스포츠연맹(FISU)이 광주U대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첫날은 "만족스럽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6일 광주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FISU 최고의결기구인 FISU감독위원회(CSU· Universiade Supervision Committee) 는 이날부터 8일까지 대회 준비 상황을 최

케말 타메르(FISU집행위원·터키) 위 원장이 이끄는 CSU는 FISU집행위원과 경기 및 선수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 며, 지난해 3월 처음 광주를 방문해 광주U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등록센터·국제관 시설

종합·해설

보안·등록·안전 등 살펴

조직위, 자문대사 6명 위촉

감독위원회는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선 수촌 시설점검에 나섰다.

케말 타메르 CSU 위원장을 비롯한 4명 의 위원과 FISU 사무국 대표단 3명은 광 주 남구 주월동 광주U대회 선수촌 현장사 무소에서 광주U대회 조직위로부터 선수 촌 시설 현황을 보고받고 선수촌 내부에 위치한 등록센터, 국제관, 종합안내센터 등을 둘러봤다.

케말 타메르 위원장은 "현재까지의 진 행상황은 흠잡을 것 없이 만족스럽다"면 서 "세계 대학생 스포츠 선수들이 묵을 선 수촌은 매우 깔끔하고 잘 지어졌다"며 높 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는 U대회 조직위 회 의실에서 보안, 등록, 안전, 숙박, 케이터 링 등 전반적인 대회준비 상황을 서면으로 점검했다.

FISU 대표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잘 준비돼 있지만 선수촌 내 선수단 승하차와 관련해 안전 지역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특히 각 선수단이 입국부터 선수촌에 등록할 때까지 언어서비스에 차 질이 있어선 안 된다. 선수들이 등록센터 에 들어와 대회를 마무리 할때까지 소통 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케말 타메르 위원장은 대회개최 시점이 여름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편안한 대 회'를 강조했다.

이들은 7일에는 육상경기장, 체조경기

장, 양궁장 등 7개 경기시설 점검 및 경기, 시설공사분야 운영에 대한 대회준비사항 을 보고받고,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정보통 신, 미디어, 마케팅 등 9개 분야 준비사항 을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이번 FISU감독위원회에 이어 11일부터 15일까지 대진표 추첨 등 을 할 대표단장(HoD·Head of Delegation) 사전회의가 개최된다. 사전 회의에 는 북한 등 60여개국 200여명이 참가한다.

한편 광주U대회 조직위는 전직 광주시 국제관계대사를 'U대회 국제자문대사'로 위촉한다.

조직위는 7일 오전 조직위 회의실에서 'U대회 국제자문대사' 위촉식을 갖고 안 효승 전 주 덴마크대사, 원종찬 전 주 멕시 코대사 등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균형발전협 정기회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서 여야 광역단체장과 여야 의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 당 윤영석·이한성 의원, 송하진 전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윤장현 광주시장.

안정된 직장만 찾는 건지 지역 인재 고갈된 건지…

학력이나 경력 등 별다른 자격 조건이 필요 없는 전남도의 청원경찰을 뽑는데 고학력 지역청년들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어 등 어학능력, 통상 이나 투자유치 실적 등이 요구되는 임기 제 공무원은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하는

등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낮은 연봉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 하는 취업예정자의 추세라는 분석과 함 께 일각에서는 즉시 현장에 투입가능한 지역 내 고급 인력이 바닥을 드러냈다 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같은 조건이 면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취업하는, 지 역인재의 '역외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 다는 것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

청원경찰 4명 선발 143명 지원 7급 임기제 공무원 지원자 '0'

전남도 채용 현장 극과 극

원서 접수자는 모두 143명으로 집계됐 다. 남자 2명, 여자 2명 등 모두 4명을 뽑 기 때문에 경쟁률은 35.7대1에 달한다. 특히 남자는 119명이 몰려 59.5대1, 여성 은 상대적으로 낮은 12대1이었다.

이는 최근 전남도가 치른 시험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올해 제1회 지방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직 73명을 뽑는데 1377명, 제2회 지방공무원 시험 행정직

등 1009명을 뽑는데 1만1713명이 접수해 각각 18.9대1, 11.6대1에 그쳤다.

청원경찰의 경우 필기, 체력, 면접 등을 거쳐 임용되면 1호봉으로 매달 130여 만 원을 받는다. 무기계약직으로 30년 이상 근무해 31호봉이 되더라도 매달 지급액 은 310여 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일손을 제 때 못 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제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 수립 등의 업무를 맡을 재조업 투자유치 담당 7급 임기제 공무원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한데 이어 투자유치 서구팀 7급 임기제 공무원 역시 최근 재공고를 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역균형발전 평가제 도입 이낙연 지사, 정부에 제안

이낙연 전남지사가 6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4개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지 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 참석해 국가 가 지방재정 분권을 포함한 지방 관련 중 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지역균형발전협의 체 대표 등 지방의 참여를 제도하고 수도 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수도권 규제 완 화 등을 추진할 때는 비수도권에 미치는 피해,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도입 하자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별 발 전 정도에 따라 '지역 등급제'를 시행해 낙 후지역에 국가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태양 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관된 세원의 지방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